

Economy Brief

영화 미션 임파서블 현실화: AI 개발 속도 조절론

Economy Brief

[경제] 박상현 2122-9196 shpark@imfnsec.com

Check Point

고금리-고유가 현상 속에 AI 개발 속도조절이 불가지면서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음

AI 개발 업체간 경쟁 및 미-중 AI 패권 경쟁 등을 고려할 때 AI 개발 속도조절이 힘을 얻기 어려울 것임

AI 개발 속도 조절 대두는 한편으로 AI 성장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의미함. 동시에 피지컬 AI시대로의 전환을 포함한 AI 경제 시대가 예상보다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음을 시사함

AI 개발 속도 조절론, 가능할까

영화 미션 임파서블(파이널 레코닝)을 보면 전 세계를 위협하는 사상 최악의 빌런인 초지능 AI '엔티티(Entity)'가 등장한다. 초지능 AI '엔티티(Entity)'는 인간의 명령을 따르는 도구가 아닌 스스로 학습하고 판단하는 독립된 초지능으로 묘사된다. 이에 따라 엔티티(Entity)'는 전세계 각국의 핵 통제권은 물론 금융, 안보망 등 모든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마비시키는 능력을 보유하는 존재 묘사된다.

영화 속의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인지는 아직 불투명하지만 미국과 중국간 치열한 AI 개발 경쟁 가속화 속에 AI 업계에서는 AI 성능 진화로 AI를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을 경고 나섰다. 예상보다 조기에 AI 개발 속도조절론이 불거졌다. 실제로 각종 조사결과를 보면 AI 성능은 여러 부분에서 인간 능력 수준에 이르고 있거나 인간의 능력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AI 진화는 영화 속 내용에 그치지 않고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그러나, AI 개발 속도가 통제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선 AI 개발업체들이 AI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경쟁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오히려 AI 개발업체들은 AI 시장 혹은 피지컬 AI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더욱 투자를 확대할 공산이 높다. 현재 글로벌 AI 시장에서는 일부업체 중심으로 과점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동시에 점유율을 높이기 위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데이터센터 건설 논란이 있지만 데이터센터 건설지출은 오히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AI 개발업체들이 과점적 지위보다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려는 경쟁의 산물이다.

미국과 중국간 AI 패권 경쟁도 AI 개발 속도조절론이 힘을 얻기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선불리 AI 개발 규제에 나서지 못할 것이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이해관계 등으로 AI 성장 속도를 늦추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중국을 견제해야 하는 미국 입장에서 자칫 AI 개발 속도조절로 인해 중국에 AI 패권을 넘겨줄 경우 향후 미국은 경제적, 군사적 측면에서 큰 손상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가뜰이나 국가부채 급증으로 미국 정부의 이자지출 규모가 군사비지출을 넘어서면서 패권국으로서 입지가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개발에서도 중국에 뒤처진다면 미국 경제와 금융시장에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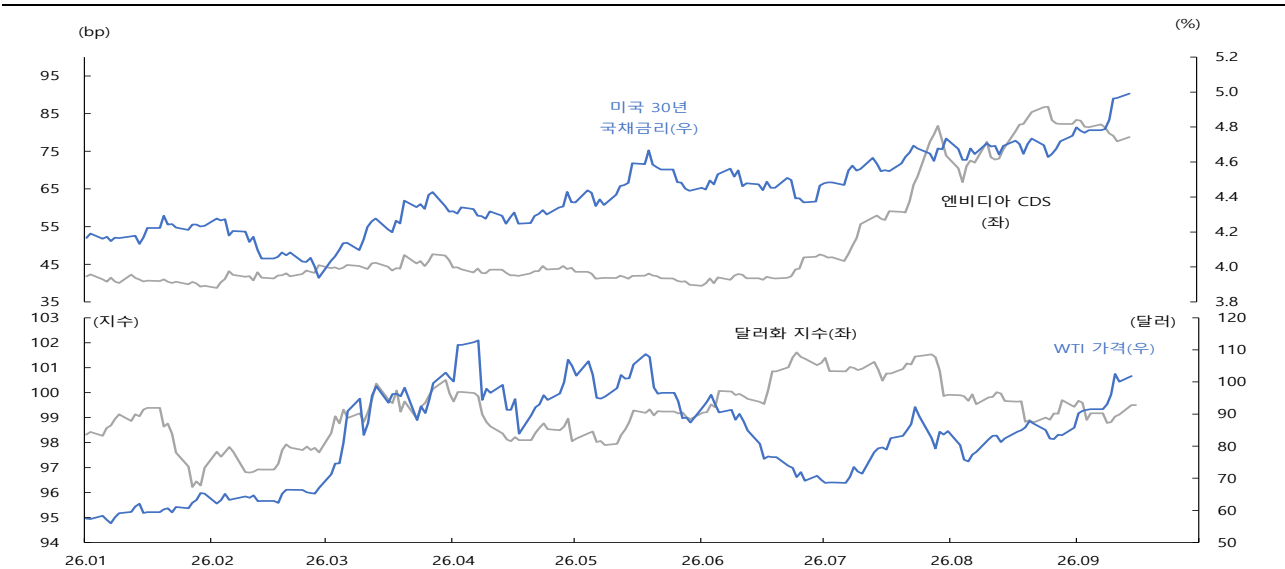
우려는 점점 더 커지겠지만 AI는 막대한 투자를 통해 빠르게 진화될 것으로 예상

'고금리-고유가' 부담에도 불구하고 미국 주식시장과 경제가 잘 견뎌내고 있는 원인은 무엇보다 강력한 AI 투자사이클이다. 막대한 AI 투자 재원으로 인해 금리가 상승하는 부작용은 있지만 이를 AI 투자에 따른 성장 혹은 수익률을 통해 상쇄되고 있다. 소위 막대한 차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익을 통해 상환되는 차입사이클이 선순환의 흐름을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차입사이클 선순환이 지속되고 위에서도 AI 사이클의 진화는 불가피하다. 달리는 자전거가 갑자기 멈추면 자전거는 쓰러지게 된다.

AI 진화에 따른 부작용과 우려가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자본시장 논리상 혁신사이클 속도를 늦추기는 어렵다. AI 개발 속도 조절이 자칫 차입사이클을 선순환이 아닌 차입사이클 악순환, 즉 고금리 충격발 신용위험을 촉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요약하면 AI 개발 속도 조절 대두는 한편으로 AI 성장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의미이다. 피지컬 AI시대로의 전환을 포함한 AI 경제 시대가 예상보다 조기에 가시화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식시장은 늘 걱정의 벽을 넘어 상승한다. 이번에도 각종 악재, 특히 주식시장과 경제를 지지하고 있는 AI 사이클의 진화속도에 대한 걱정이 커지고 있지만 AI 사이클은 계속 진화하면서 또 다시 걱정의 벽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1. 중요한 경계선이 있는 주요 가격지표



자료: Bloomberg, CEIC,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2. AI 성능은 이미 인간이 할 수 있는 활동 혹은 능력에 근접하거나 넘어섬

Select AI Index technical performance benchmarks vs. human performance

Source: AI Index, 2026 | Chart: 2026 AI Index repor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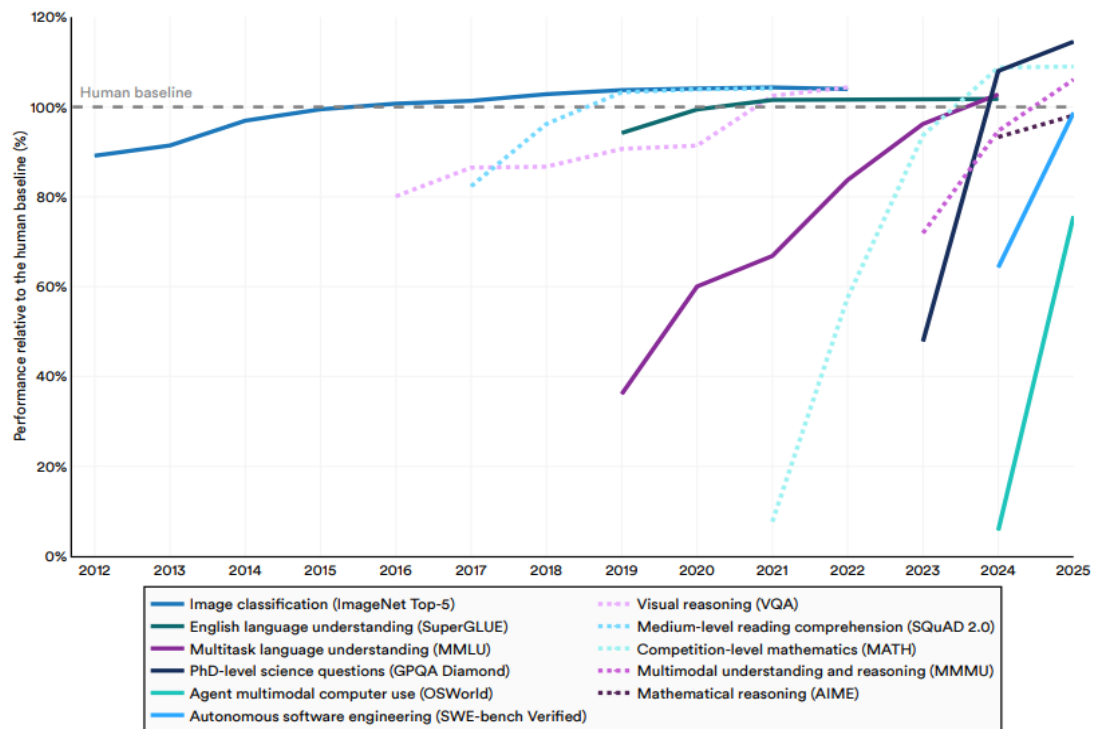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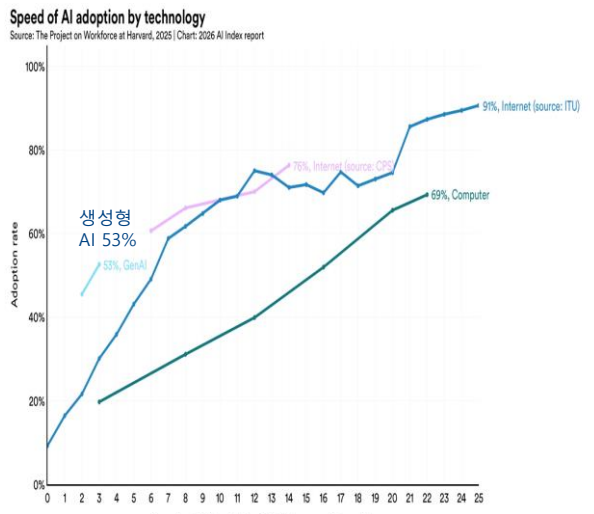


Figure 2.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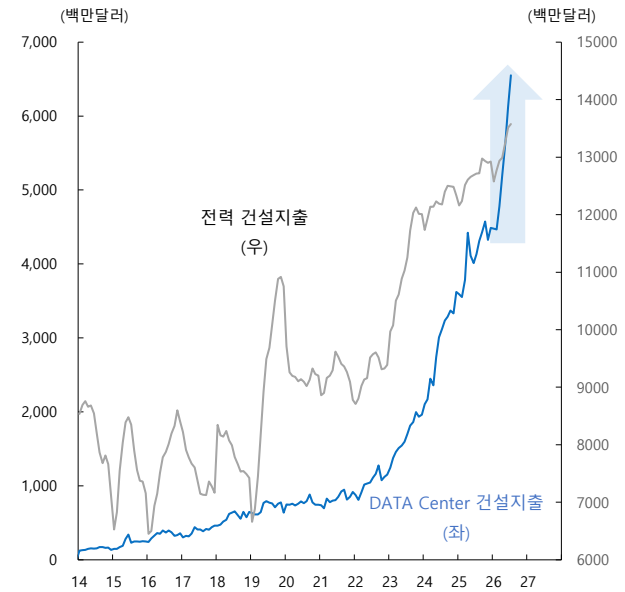
자료 : Stanford HAI,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3. 기술혁신 제품의 보급율 사이클 비교: AI 보급율이 여타 기술 혁신 사이클대비 빠른 보급 속도를 보이고 있음



자료 : Stanford HAI, iM증권 리서치본부

그림4.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미국 데이터센터 건설지출액



Compliance notice

- 당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및 제 3자에게 E-mail등을 통하여 사전에 배포된 사실이 없습니다.
 - 당 보고서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박상현)
- 본 분석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따라서, 본 자료에 의한 투자자의 투자결과에 대해 어떠한 목적의 증빙자료로도 사용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작성자 및 당사의 허가 없이 전제, 복사 또는 대여될 수 없습니다. 무단전제 등으로 인한 분쟁발생시 법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하시기 바랍니다.